

# 제주인의 해민정신, 그 시대적 위상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송 성 대

## 1. “Local Action Moves the World!”

제주의 자연경관의 출중함은 이미 세계인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제주도는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2002년의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 지정과 함께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자연환경 3개 분야의 3관왕에 올랐다. 세계 최초로 ‘트리플크라운’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2011년 11월 12일에는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재단>에서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바 있다. 아름다운 경관 속에 살고 있는 제주인들로서는 이 섬땅에 터잡고 살고 있는데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짐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예술인들이 금강산보다 한라산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해온 것도 금강산은 오로지 자연미만 있어 건조함이 보이지만 한라산은 인간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어 촉촉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어 문화, 즉 무형의 정신문화의 아름다움 역시 찾아질 수 있다. 그동안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전승해온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2009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어 제주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지만 근래에 이르러서 연세대 조혜정 교수가 세계최초의 proto-feminist라는 해녀(여성)의 문화와 탐라의 공동체 경관을 오롯이 보존한 성읍민속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자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필자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아젠다들에 뒷받침될 만한 제주섬의 정신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중에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思想이나 信念**”이라는 조항이 있다. 가장 제주적(특수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다분히 건강부회적인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보편적)일 수 있는 정신문화가 제주문화(특수문화) 속에 존재함을 자부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思想이나 信念**”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설명의 여지없이 ‘인류의 행복 실현’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류의 행복 실현과 관련된 오늘 21세기의 화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영국의 기든스 교수가 말하는 ‘제3의 길’(The Third Way), 덩샤오핑의 ‘백묘흑묘론’,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론’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려는 이념들이다. ‘자유’는 경쟁과 개인주의의 다른 말이요, 평등은 연대 혹은 공동체주의의 다른 말이다.

필자도 ‘제3의 이념’을 생각하지만 기든스 교수의 그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기든스 교수의 ‘제3의 길’은 조작적이고 정치적 이데올로기(Ideology)를 말하지만, 필자의 것은 자생적인 그리고 문화적 라이프쉽(Life-ship)을 뜻한다. 나이트쉽(Knightship), 젠틀맨쉽(Gentlemanship), 프런티어쉽(Frontiership), 사무라이쉽(Samuraiship) 등에서 후자(ship)의 의미는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사변적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사실들의 객관적 관찰과는 유리되어 있다. 라이프쉽은 그렇지 않다.

라이프쉽이든 이데올로기든 모두 가치 선택 과정을 겪는다. 가치판단과 관련된 정의적(情意的) 영역은 지리학의 주 의제가 되는, 눈에 보이는 경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답이 명쾌하지 않아 논쟁의 소지가 많고 평가의 문제가 많다. 하지만,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가치화 전략(valuing strategies)’ 모형들이 1970년대에 이미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조는 1980년대 이후 영국으로 전파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간, 국제간 접촉 기회가 빈번해짐에 따라 갖가지 사회·경제·정치·문화·환경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개인적·집단적 가치의 혼란이 전개되어진 것과 관련된다. 즉, 지역성·정체성이 상실되어간다는 우려 속에 나온 것들이다.

‘세방화’란 용어는 원래 ‘세계로의 진출과 현지에 적응’이라는 경영전략과 관련된

용어로서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하기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화에 보다 강조점을 두어 ‘개별 지역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세계로 이어진다는, 즉 지역 발전이 지구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지세화(地世化, localization)의 슬로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Local Action Moves the World!”이다.

세방화든, 지세화든 모두 ‘지역’ 내지는 ‘지방’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조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프로젝트의 입안과 시행이 없으면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합리적 프로젝트는 토착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이해와 습득이 전제된다. <UNEP 환경정책이행본부> 엘리자베스 마루마 음레마 부부장은 “토착지식(土着知識)이란 어느 한 지역사회가 수세대에 걸쳐 특별한 환경에서 살아오며 축적하는 지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섬의 토착지식은 다종이다. 본 글에서는 이 중 정신문화에 관련된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재독(在獨) 철학자인 송두율은 『21세기와 대화』에서 “일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좌우명이나 가훈 등을 정해 자신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철학이 도대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다”면서 “철학은 오늘날 모범적인 삶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델을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사회과학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좀더 ‘분명히’ 해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인문학을 체계(體系)인 발전에 대한 기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훔뜯고 재탕해먹는 학문, 소모적이고 편협한 해석학을 계속하며 문화적 비판론에 빠진 채 우울한 전망에 매달려 있는 학문이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는 존 브록만(John Brockman)은 “오늘날에는 1950년대 방식으로 프로이트, 마르크스, 모더니즘 따위를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제공하지 못한다. 과학을 추방한 그들의 문화는 경험 세계와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존 브록만은 인문학이 뜯구름 잡는 이야기나 한다는 것이다.

강준만 교수 역시 비슷한 한탄을 한다. “우리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게 정말 허무한 거야.……그런데 우린 늘 남들이 생산해 놓은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 거는 짓을 학문이랍시고 하고 있으니. 게다가 또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 밥벌이 삼아 하려고 그러니, 우리 같은 사기꾼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렇게 떠들었던 나는 이제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고등 사기꾼’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오늘날 종교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정신적 대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이어서 그는 “…… 종교

에서 정의를 본 일이 있는가? 정의가 없는 집단! 그것은 육체적 폭력은 없으나 그 폭력을 이용하는 불량배들의 집단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외형은 성인군자 같으나 그 속은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무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지리학도인 필자는 제주섬을 사례로 하여 가치 도출 이전에 섬 주민의 정신생활 ‘현상’, 즉 팩트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했고, 거기서 도출된 결과물은 필자는 물론 타자들에 의해 가치교육의 자료로 활용되어 오기도 했다. 여기서 ‘과학적’이란 표현은 ‘무엇’(What)에 답하는 ‘서술적 記述’에 의존한 문화학(지리학)의 종전 패러다임을 넘어 현상에 대한 ‘왜’(Why), ‘어떻게’(How)라는 물음을 던지고 답하는 ‘설명적 기술(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 2. 광풍촉석(狂風轟石)의 Cocoonism(홀로서기 정신)

‘나홀로족’ 또는 ‘코쿤족(cocoon)’은 원래 외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안전한 공간에 머물려는 칩거증후군의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전적 의미가 변하고 있다. 즉, ‘나홀로족’은 **무의자존(無依自存) 능력이 있고 따라서 외부 자극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부연해서, 회자되는 코쿤족의 의미는 정상적인 사회 생활과 경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나홀로 생활을 추구하는 나홀로족이라는 점에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와는 구분되는 말이다. 귀차니스트, 싱글족, (디지털)노마드 등을 묶어 ‘코쿤족’이라 부르고 있다.

전국을 15개 역사문화권으로 나누어 연구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인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장석홍 교수팀이 맺은 아래의 결론은 제주라는 지역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며 필자의 지론이 정합적임을 반증해 줄 것이다.

제주는 어느 지역보다 한국사의 다양성을 많이 간직한 곳이라고 판단된다. **해양문화적 요소**, 독자성과 토착성, 민중성 등이 그것이다. 육지와는 달리 지배계급 중심의 역사를 형성하지 않고 **민중지향 성향이 강하다.** 또 이데올로기나 학문적 이념보다 생존·생활을 위주로 한 문화권이 형성돼 토착성이 강하다. 제주는 **지리적 환경과 문화독자성이 자기완결적 문화구조를 갖고**

있어, 본토와 사뭇 달랐다. 또 조선 초기 탐라국이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오랫동안 탐라문화의 동질성을 보존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탐라국의 멸망은 중앙사적 관점이다.

제주도가 변방이라 조선조 때부터 중앙 조정에서 임명되어 오는 관리로서 경래관이나 유배 온 학자들은 그들이 내도하기 전에는 도민이 논농사지역민처럼 순종적인 항민(恒民) 아니면 뒷사람에게 불만만 털어놓는 원민(怨民)이라서 게으르고 우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역사에 나타난 것처럼 제주인들은 외부에서의 부당한 억압이 있으면 언제든 저항하는 호민(豪民)의 기질이 있었다. 여러 기록들에서 보듯이 그러한 저항은 정치공동체에 대해서만 아니고 가족 간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옛 풍수서에 보면 제주 사람들은 부모형제 친족 간에도 잘 다투는 사람들이다라면서 그 이유를 한라산이 한반도의 산처럼 정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다. 제주인들은 세계적으로 보기도문 자생적 아나키스들이라 하겠다.

제주 사람들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도서도 정평이 나 있다. 그것은 그렇게 작은 섬에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렇게 많은 신화와 수천 수백개의 민요와 전설을 만든 경우는 서양의 고대 그리스 말고는 시공을 망라하여 찾기 힘들다는 데서 증명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변화무쌍한 기상·기후, 모험적인 바다 생활, 그리고 식생과 동물상 등의 상관(相觀)과 다양한 자연 경관(景觀)이 1만8,000여 명이나 될 정도의 많은 신(神)을 깃들이게 했다. 이러한 풍부한 상상력과 지혜는 뽀니뽀니해도 목숨을 건 바다생활자들로서의 기층민이 되는 제주인들의 삶이 바로 탐색(Quest)의 삶 그대로였기 때문이었다. 영웅신화는 모두 이 탐색과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목숨 걸 일이 없는 순농경생활만은 모험이 뒤따르는 탐색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반복되는 생활뿐인 것이다.

제주인의 심성은 조선시대 경내관(京來官)이나 유배자, 그리고 일제시 이방인인 일인(日人)들과 한국인인 석주명 등이 지적한 내용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주장한 제주인에 대한 이미지로서의 심성은 다음의 10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생활력이 강하여 활기가 있다.
- ② 의뢰심이 적고 자영자족(自營自足)을 존중한다.

- ③ 근검질실(勤儉質實)하여 경제사상이 발달해 있다.
- ④ 전통적으로 기개(氣概)가 부(富)하고 용맹하다.
- ⑤ 위기 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단결을 잘한다.
- ⑥ 배타성이 있다.
- ⑦ 자존심이 강하다.
- ⑧ 시의심(猜疑心)이 강하다.
- ⑨ 공존공영심(共存共榮心)이 약하다.
- ⑩ 표한(慄悍)·방사(放肆)하다.

위의 제주인의 심성은 물론 상대적 비교이다. 물론 그 주 상대는 한반도부 삼남 지방(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농농사지역민이 된다.

제주인의 심성을 수렴하여 8도 지방민의 심성과 비교되도록 정리하면 제주 사람들은 “무의기개(無依氣概)의 광풍축석(狂風矗石 :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외돌괴’ 처럼 의연하게 기백을 가져 홀로서기를 하는 모습)”과 같은 심성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전통사회 한반도 8도인과 제주인의 기풍 비교〉

윤 행 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송 성 대	제 주 도
	泥田鬪狗 이전투구	靑山猛虎 청산맹호	石田牛耕 석전우경	鏡中美人 경중미인	岩下老佛 암하노불	淸風明月 청풍명월	風前細柳 풍전세류	泰山橋岳 태산교악		狂風矗石 광풍축석

(윤행임: 조선 정조 때의 규장각 학자)

제주인의 정신을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제주인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인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려면 제주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환경을 이용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제주섬의 환경은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농경생활의 기반이 되었던 ‘토양’, 그리고 토지소유형태를 규정짓는 ‘토지의 광협’, 그리고 생활 자료의 유통과 관련된 ‘위치’ 등 세 가지 요소가 우선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제주선민들의 사유구조와 관련된 환경으로서 ‘화산회토(뜨땅)’, 척박하나 광활한 ‘용암평원’, 그리고 ‘동아시아해 한가운데의 환해도’ 등을 들 수 있다.

### 3. 화산회토에의 적응기제인 자유정신(liberalism)

제주도의 토양은 90% 이상이 화산회토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곳곳에는 화산암반의 노두(露頭)가 나와 있어 경지를 잘게 나누어 버리고 또 토양 속에는 화산암설들이 들어있다. 화산회토를 제주 사람들은 ‘뜯땅’이라 부르고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점토질의 토양은 ‘된땅’이라 부른다.

화산회토는 주지하다시피 수십 수백만년 동안 화산활동시 분출된 화산재가 잔적하여 이루어진 토양이다. 입경 크기에서 사양토로 분류되는 화산회토로서의 뜯땅은 투수성(透水性)과 관계된 공극률이 70%가 넘는 외에 빗방울의 충격이 있을 경우 곧 표면 공극을 메워 초기에 많은 수량이 다량의 토양 성분, 가용성 염류, 토양 유기물 등과 함께 바다로 유실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 화산회토는 일단 물을 머금으면 일반재(灰)와 같이 큰 공극률로 인하여 쉬이 투수되어 함수량이 낮아지게 된다. 강수량의 40%(12억<sup>m</sup>)가 지하로 스며들어 이 중의 약 20%는 다시 지질구조대를 따라 바다로 유출되고 나머지 80%(10억<sup>m</sup>)가 지하에 포장되나, 높은 공극률로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여 지표로의 수분 공급이 안 되는 것이다.

화산회토는 척박함의 상징이며, 사막의 상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응은 다량의 거름과 지속적인 잡초와의 싸움도 해야 하겠기에 과부하의 노동이 투입되는 밭농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주섬에는 밭아주어야 하는 건조농법(鎭壓農法)을 위한 말(馬)의 문화, 물 길는 허벅문화, 포터블한 아기구덕 문화, 퇴비생산을 위한 ‘똥통시’(養豚廁間) 문화 등이 생겨났다.

“마소의 새끼는 시골로 보내고, 사람의 자식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속담은 백사 이항복(李恒福)이 만들어 낸 말이다 라고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전하고 있지만, 이 속담은 후에 “말은 나면 제주로, 사람은 나면 서울로”라는 속담으로,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는 다시 “마쉬랑 나건 상산에 보내곡, 사름은 나건 서월에 보내라”(말은 나면 한라산에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으로 변했다. 이러한 전통은 제주도가 한국의 켄터키, 나아가 아시아의 켄터키로 발전토록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도록 하고 있다.

산재하는 화산암석류에 의한 경지의 영세화는 중국대륙의 중원지역이나 한반도의 삼남지방, 일본열도 야마토분지의 주류지배문화지대인 논농사 지대와 달리 소유경지를 분산한 채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 이 분산된 경지경영체계가 제주 사람들로 하여

금 균분상속제, 정확히는 단자우대균분상속제(單子優待均分相續制)로 가게 했다.

균분상속제야말로 논농사지대의 '두레'처럼 협동노동을 않고 개별로 농사짓는 것이 <최소거리이동의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합리적이 되었다. 이것은 곧 부자간, 형제간의 독립된 생활을 의미하고 이것이 제주인으로 하여금 아나키스트가 되도록 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만이 갖는,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도 부모와 자식이 딴살림을 하는 신거은거제(新居隱居制)의 '안팎거리 문화' 내지는 '다운사이징(Down Sizing·소형으로 줄여 홀로살기) 문화'도 바다생활과도 관련있게 되지만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다.

언어 자체가 이데올로기라 하지만, 제주도에는

“불턱이 지만씩이러야 살아진다(고부간 부업이 따로여야 갈등없다)” (고부간)  
“다 질루지만씩 살아야매!(형제간도 서로 의존하지 말고 각기 살아가라)” (형제간)  
“애비아덜간 범벅도 그릇그성 먹으라!(아버지와 아들 간이라도 가운데 선을 그어 놓고 따로 먹어라)” (부자간)  
“시집갈땐 솔단지 들렁간다(시집갈 때 시모와 따로 밥해 먹을 솔을 들고 간다)” (신거은거제)  
“아덜은 장개가민 팔촌이라(아들도 장가가면 자식도 남도 아닌 애매한 관계가 되어버린다)”

는 등의 격률 내지 훈육담이 있고 제주 사람 모두가 이의 없이 이에 동의한다.

그런데 한반도부의 오늘날 나타나는 신종 속담은 옛과 달리 제주도의 전통적 속담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  
“장가간 자식과 함께 살면서 애들 봐주는 사람”,  
“자식한테 재산 다 주고 용돈 타 쓰는 사람”  
-이상 3대 바보-

“아들은 육촌 시동생보다 못하다”,  
“처가와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말은 옛말”

“며느리는 사랑해선 안 될 사람”,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딸은 아직도 내 사랑”,  
“친구, 돈, 딸 등 삼복(三福)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하다”



“언어가 없으면 사유도 없다.” 정신이 최초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언어이다. 사회와 정신의 고귀한 기구인 언어 자체가 행동을 지시하는 이데올로기, 바로 그것이다.

“논은 자리로 해먹고 밭은 거름으로 해먹는다”, “벼는 농부 밭자국 소리 듣고 크고, 밭작물은 호미 끝 가는 데로 된다”는 등의 말이 있지만 비산비야(非山非野)의 구렁의 문화를 갖게 된 한반도에서의 논농사는 ‘문전옥답(門前沃畝)’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그 입지가 산불근(山不近) 강불근(江不近)의 산록완사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래야만 천장천(天井川)의 나라에서 홍수의 피해를 피하고 개울에서 내려오는 물을 역학적으로 쉬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요지는 흔치 않았고 따라서 권문세가 즉 호강(豪強 : 일은 하지 않고 놀면서 큰소리치는 지주, 양반, 토호 부류를 지칭)들만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마침내 한국적 특징인 종족취락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강우(장맛비)를 이용하여 행하여만 하는 완사면에서의 논농사는 물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계질서를 철저히 기할 수 있는 종족취락을 만드는 것만이 최선의 삶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종족취락은 곧 항렬 내지 촌수에 의해 위계가 세워진 혈연적 집단주의를 의미하고 여기서는 피붙이끼리 서로 온정(hospitalism)을 베풀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일조백손(一祖百孫) 사상을 견고히 하는 사당문화(祠堂文化)가 일반화되었고,孝를 지상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고, 이를 고취하는 선비들을 동일시(롤 모델)의 대상으로 강조하여 왔다.

유교관에 투철한 지관들이 만든 『過瀛洲山勢論』에 역시 “……反相背而南北 不孝悌而嗷咻 …… 左向山而右背 六親戚而不合(……한라산 정상부가 남과 북으로 향하고 있어 부모나 형을 잘 모시지 않는다. 왼쪽을 향한 산이 오른쪽을 등지고 있어 일가친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분산경지경영 과정에 형성된 혼성취락의 전통을 이어 온 제주도에는 사당(祠堂)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대신 한반도에는 전혀 없는, 마을의 입촌시조 모두를 모셔 백조일손(百祖一孫) 사상을 견고히 하는 ‘본향당(本鄉堂)’만이 있다. 본향당은 자연부락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효 이데올로기보다는 용(勇)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 사당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까운 조상들에 대한 제사(忌祭)를 형제간에 나누어 행하고, 계절제(名節)도 돌아가면서 하는 윤회봉사를 취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는 “송년에 밭풀쟁 마랑 입 하나 덜래라”라는 속담이 있다. 흉년에 배 고프다고 밭 팔아 버리면 다음 해에는 모든 식구가 굶어 죽으니 식구 중에 한 사람은 없어져라(죽어라)는 속담이다. 그렇다면 죽어야 할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속담에 뒤이어서 “송년에 아인 배 터정 죽고, 부뉘는 배 골랑 죽는다”라는 말이 나온다. 흉년에 철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주는 음식을 마냥 먹어대어 배탈나서 죽고, 대신에 부모는 배고파서 죽는다는 뜻이다.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부모가 스스로 죽어간다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이런 상황에서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인위적인 효도, 즉 인효(人孝)에 바탕한 한반도는 철저히 어른 중심의 삶이나 인간 본성에 의한 효도, 즉 천효(天孝)에 바탕한 제주섬은 철저히 어린 사람 중심의 삶이었다. 제주섬에 고려장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인생60고려장’이란 말이 있지만—한반도의 타율적 고려장에 대비되는 자발적 고려장이 있었던 셈이다.

#### 4. 산고원야에의 적응기제인 평등정신(Egalitarianism)

전통농경사회에서는 토지의 소유 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원 인자가 된다. 그런데 광활한 무주공야의 용암평원이 근접하여 있어 다행히도 제주섬의 농민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밭 한판 늘리느니 식솔 하나 줄이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을 만들어 놓는 등 하면서 왜 제주인들은 보다 넓은 경지 면적을 소유하여 생산량을 올려 논농사지대의 농가에서처럼 부(富)를 추구하고 또한 지주가 되려 하지 않았을까.

제주섬에는 비록 비옥도가 낮으나 총 경영지 면적 중 개간 경작 가능한 야초지가 다른 지역은 1%도 안 되는데 제주도는 무려 21.2%나 되고 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에서는 17세기 후반까지 기본적으로 노비를 동원한 부재지주(不在地主)로서의 경반(京班)이나 토호로서의 향반(鄕班)들에 의한 경지 확장이 끝나 더 이상 개간에 의한 경지 확대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후로 지주로서의 양반의 세력은 더 이상 신장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자 균분(均分)에서 장남우대의 상속 제도(宗法經濟制度)로 바뀌게 되고 아울러 동족집단의 사회적 결속력은 더욱 강화, 18세기 후

반에 이르러 5대조 이상의 조상 제사(時祭 혹은 墓祭)를 행하는 문중 조직의 성립을 보도록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술한 대로 한라산 산록에 넓은 무주공야의 용암평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비록 비옥하지는 못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개간 경지화한 사람이 그 경지를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바로 그 이유가 제주도에서는 소작인이나 머슴이 거의 나타날 수 없어 도무·걸무의 섬이 되게 하였고, 구성원간의 갈등도 저감시킬 수 있어 지주양반을 조롱하는 탈춤 등의 민속도 나타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한반도부에는 “흉년에 쉰 놈은 도둑되고 약한 놈은 거지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제주 반만년의 역사에 소작쟁의가 한번도 없었던 것도 자작농문화의 보편성에 인유한다. 한반도에서는 본토만이 아니라 부속도서 작은 섬에도 부지기수로 소작쟁의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출신지 하의도와 법무부장관을 지내고 2015년 올해 광주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뉴김대중을 꿈꾸는 천정배 의원을 낳은 암태도는 소작쟁의로 너무나 유명한 섬이지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제주에도 일제시대 때(1912년) 국공유지인 산간지대의 화전농이 금지되기 시작하면서 극히 미약하나마 소작농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리적 공간으로 보아 토지 생산력이 비교적 높은 그리고 반농반어의 생활권인 해안지대에 국한되었고 토지 점유가 자유였던 반농반목 생활권인 중산간지대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그 소작인들도 자립심이 강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남에 따라 곧 소멸되어 갔다. 이러한 자작농의 일반화의 증거는 1928년의 농가 3만6,476호가 9년 후인 1937년에는 그보다 1만1,116호가 증가(매년 1,235호 증가)한 4만 4,146호로 증가한 예에서 알 수 있다. 1937년 당시 한반도에 있어서의 소작농은 전 농호(農戶)의 82%였는데 반해 제주는 16%에 불과했다.

왕토사상이 있었던 조선조 때의 토지 소유관계가, 토지 생산력이 극히 높은 논농사 중심의 한반도부에서는 ‘국가적 영유—지주적 소유—소작농적 점유’라는 다층구조였다면, 변방이며 열악한 토지 생산력을 갖는 제주는 ‘국가적 영유—자작농적 소유’라는 단층구조를 가졌던 것이 제주로 하여금 농노적 소작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이유이다. 이것은 유럽이나 일본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장원과 다르고, 혈족에 의해 둘러싸인 한국형 봉건 장원인 양반들의 ‘반족농장(班族農莊)’내의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인으로 이루어진 상황과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다. 즉 신분과 계급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특히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부의 논농사지대에는 1920년

의 예만 보아도 한국 농민 전체의 3.3%만이 ‘호강(豪強)’이라 불렸던 양반 지주였고, 19.5%는 자작농, 그리고 나머지 77.2%가 머슴에 가까운 소작농이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부는 제주섬과 달리 평균해서 농민의 70% 내외가 소작인이 되어 관에서도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로 인한 피해가 심하여 호강과 그 밑에 있는—제주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모르는—악명 높은 세리(稅吏)라 할 ‘마름(畝音)’에게 대부분의 농가가 시달린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당시는 농민인구의 3.3%에 해당하는 지주가 전국 논 면적의 64.3%, 전국 밭 면적의 43.3%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곡창이라 불리는 호남지방 김제군 하나의 군이 생산하는 식량은 강원도 전도의 생산량과 같았다.

## 5. 제주 해민(海民)들의 출현과 이동문화(Nomadism)

한반도 사람들은 “대문 밖이 저승이다”라며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쳤다. 제주 사람들에게 탄 세상은 물마루(수평선) 너머였지만 한반도 사람들에게는 ‘고개 너머’가 탄 세상이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 넘은, 즉 고향을 떠나 탄 세상으로 간 사람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는 것이다. 조상 묘는 누가 돌아보며, 부모 수발은 누가 하느냐이다. 고향을 떠나면 양반도 상민이 되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은 “나도는 개가 평도 물어온다”, “타리거성(他離居生) 허라(고향을 떠나 살라)”, “노루도 본바닥에 들면 죽나(포수에게 쫓기는 노루가 자기 보금자리에 가서 숨으면 죽는다)”라는 가르침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제주 사람들은 불박이 생활보다 떠돌이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제주땅은 물막은 화산섬이다. 거기에 풍세가 다른 지역에 비길데 없이 강하다. 제주를 ‘대문무의 섬’이라 하지만, 거지와 도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풍세가 강한 위에 방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 형태의 대문은 있을 수 없었고 세 개의 통나무를 가로 걸친 정낭만이 있었다. 독특한 내풍성의 견고하고 빈틈없는 가옥경관 또는 “집 지성 삼년, 배 지성 삼년”이란 경구에서 보듯이 제주 사람들은 ‘대충’해서는 살 수 없었고 ‘모지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모지직(快斷) 정신을 높이 치는 제주사람들은 대충하는 사람을 ‘해밀썩이’, ‘식은 죽 닭은 거’라 하여 흉을 봤다.

제주섬은 화산섬이기에 보리쌀이나 좁쌀, 잡곡 외에는 돈으로 쓸 수 있는 쌀(米貨)도, 옷감(布貨)도 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을 만들 쇠붙이도, 아프면 먹을 약도, 긴요한 소금도 거의 나지 않거나 전무했다. 이 모두 외부에서 구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나지 않는 희소 상품을 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희소상품으로 육상에서 우황이나 말총 정도가 낫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제주사람들은 마침내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순상(楸狀) 화산섬 제주의 바다(海底)는 한반도나 중국처럼 빨바다가 아니고 돌바다였다. 돌바다라는 것은 풍부한 해조류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해조류를 먹고 사는 어패류가 풍부함을 의미한다. 거기에 바다 속은 어로작업에 유리하도록 맑디맑았다. 바다가 보고라는 것을 알게 된 제주선인들은 바다에 뛰어들었다. 배 위에서 하는 소극적 어법이 아니라 옷을 벗고 직접 뛰어들어가 하는 적극적 어법으로 해산물을 캐는 사람(樵潛漁民; 男=보재기, 女=좁네)과 이 해산물들을 유통하는 사람들(船主와 船格)이 나타났다. 이들을 제주사람들은 '보재기(浦作人)'라 하지만 이들 바다와 관련된 삶을 사는 갯사람 모두는 (순)농민과 대비되는 바로서 해민(海民; Seaman)들이었다. 물론 이들의 생활과 불가분한 신당(神堂)의 신들과 무당들도 넓은 의미의 해민이기도 하다.

해민이라고 해서 오로지 바다생활만 한 것은 아니고 거의 반농반어생활을 했다. 그렇지만 제주섬 내에서도 이들은 뚜렷이 구분되어 유교에 매몰된 산불근(山不近) 해불근(海不近)의 중산간 내륙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은 양촌(良村)이며 또한 자신들은 양반이라 생각한 반면, 해민들이 사는 갯마을을 포촌(浦村)이라 불렀고, 이들을 '알뜨르 보재기'라 하여 천시하였다. 그러나 알뜨르 보재기들은 그럴 때 마다 중산간 내륙지방 사람들을 보면 바깥 세상을 모르는 고루하고 미개(未開)한 '웃뜨르 촌놈'이라 놀려댔다. 두 지역간에는 혼사도 꺼려했다.

물막은 제주섬에 이들 해민들이 출현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남아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처럼 채집생활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이다. 자연의 스트레스가 강한 물막은 섬이기에 고대 그리스에 비견되는 —그리고 임석재 교수와 조동일 교수도 주장한 바와 같이— 유니크한 신앙과 신화가 탄생하였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다. 해민들은 칠성판을 등에 지거나 제주배(덕판배)를 타고 다니며 이어도토피아(제주인의 유토피아)를 그리며 생을 살았다.

바다에서의 생활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쟁은 실력을 중시한다. 특히

남자에 비해 보다 평화적이라는 여성들 사회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중국 주재 영국 대사였던 마카트니 경(Lord Macatney)은 사회변혁은 없이 사람만 바뀌어지는 동양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을 듣고 보고나서, 바다사람(海民)답게 “부족한 사람이 갑판 위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배의 기강과 안전은 작별을 고한다.”라는 말로 빗대어 바다를 모르는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은 실력자에 대해 ‘배의 조타수가 파도를 헤치고 항로를 열어가는 능력’에 비유하지만, 바다에서만은 문무를 겸한 탐색가가 되지 않으면 실력자가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실력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질은 달라졌다.

농경사회처럼 촌수, 향렬이나 나이 또는 신분 등의 귀속적 지위가 아니라 해산물 채취능력에 따라 상군·중군·하군으로 나누어져 의사결정 과정에, 혹은 ‘불턱’(잠시 몸을 덥히는 모닥불 자리)의 윗자리 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기에 모녀 사이, 자매 사이도 경쟁을 하게 된다. “게움(질투)이랑 허지말곡, 심백(경쟁)이랑 흐라”라는 제주섬에서만 볼 수 있는 격률은 앞에서 언급한 균분상속제와도 관련되지만 성취적 지위를 존중하는 바다생활자들과 관련이 깊다.

제주해민들은 경쟁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깊은 관용(똥레랑스) 내지 박애정신으로 대동주의를 실천했다. 한반도부의 바다는 바다 주인인 해주(海主, 藪田主)가 있지만 제주해민들은 공동체의 대동을 위해서 공동어장문화를 창조했고, 거기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이면 수확물을 나누어주는 품증관행이 있었다. 즉, 한반도부는 예외없이 바다가 특정인의 사유재산(私有財産)이었지만 제주섬의 바다는 그 마을에 거주하는 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총유재산(總有財産)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 어부들의 뱃동서의식, 노인을 위해 할머니들만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할망바당’의 개념도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능력에 따른 배분적 정의(the right; 옳음)와 이웃사랑에 따른 균분적 정의(the good; 좋음)를 잘 조화시킨 이상적인 이념(the beauty; 아름다움)을 싹트게 하였다.

17세기 이후에 출현했다는 해녀들은 제주섬을 ‘여성의 섬’으로 인식토록 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주로 남자(보제기)들이 생활을 주도했다. 탐라국을 당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올려 놓은 것도 보제기들이었으며, 7세기 신라(선덕여왕)가 탐라가 두려워 국가보위용으로 세운 황룡사 9층탑의 4층(1일본, 2중화, 3오월, 5옹유, 6말갈, 7단국, 8여적, 9예맥)을 탐라(托羅)로 자리매김토록 한 것도 해민들이었다. 그리고

왕조실록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선단을 이끌어 ‘바다의 유목생활’을 주도한 것도 해민들이었다. 제주인들이 서방정토라는 ‘이에도토피아 사상’ 역시 이들 남자 해민들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해산물을 내가고 생필품을 외국에서 들여온 것도 남자 해민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제주도가 여다의 섬이 된 것은 이들 남자 해민들의 희생이 컸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제주섬에 만연했던 축첩문화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남자가 귀해지고, 17세기 이후 조선 조정의 임란과 호란의 양란에 대응한 새로운 농지 정책으로 화폐 경제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해산물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제주 여성들이 물질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전선에 나가 별이를 하게 되자 제주 문화는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되었다. 남녀가 평등해지기 시작했고 이윽고는 이혼율이 높아졌다. 그렇게도 ‘소박데기’ 될 것이 두려워 시부모와 남편을 하늘처럼 모셨던 한반도부에서는 이제서야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더 좋다”하여 여자쪽에서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제주섬에서는 일찍부터 “귀찮은 더블보다 자유로운 싱글이 더 좋다”하여 쉽게 이혼한 역사를 갖는다. 남자육아취사포섭, 부모자식간 경제생활 분리도 이로써 설명된다.

조혜정은 제주를 남녀관계를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편 비우세(neither dominant) 사회’라 하고, 제주여성들을 —세계적으로 보아— ‘proto-feminist(여권신장의 元祖)’들이라고 호평하고 있다. 여성이 해방되지 않는 땅에서 부르짖는 민주는 허상일 뿐이다.

바람 많고 척박한 제주섬은 ‘장소의 번영(place’s prosperity)’은 가져올 수 없었지만 해민들에 의해 ‘주민의 번영(people’s prosperity)’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근세에 있어 평균적으로 제주섬사람들이 한반부 어느 지역보다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해민 특히 해녀들이 외지에서 벌어들인 몫이 컸다.

제주섬에는 유교문화에서 가장 천시했던 이들 해민을 기리는 문화가 있다. 모슬포 포구의 김묘생(金卯生) 공덕비, 김만덕을 기리는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제주항여객터미널의 해녀벽화, 제79회 전국제주체전의 마스코트인 ‘숨비(비바리 해녀)’가 그 한 예이다. 그리고 김녕리 한연 한배임제, 평대리 부대각, 조천 <새꽃알 본향당>에 신으로 모셔진 안씨선주·송씨선주·박씨선주처럼 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이 모두 유교근본주의 문화권에서는 언감생심 생겨날 수 없는 문화이다.

## 6. 해민정신(Seamanship)의 특수성과 보편성

균분상속제, 분제(分祭), 곽부조, 신거은거제, 심백(경쟁 조장), 높은 이혼율, “질루지만씩 살라!”, “안팎거리문화” 등에서 제주인들의 개체주의(따로주의) 정신은 여실히 증명된다. 또한 공동목장, 공동어장, 원담(돌살), 캐왓(공동墾田), 본향당, 품증·할망바당·구홀(만덕정신)문화, 모듬소분, 컨벤션센터 건립, 먹는샘물공장 운영, “늬의 대동(大同) 허라!” 등에서 제주인들의 독특한 대동주의(또같이주의) 정신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신은 한반도부에는 전무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신이다. 개체주의의 다른 이름이 ‘자유’이고, 대동주의의 다른 이름이 ‘평등’이다.

원시공동체나 권위주의적 집단, 혹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체주의적인 문화적 풍토 속에서는 개체화의 과정은 불완전하든가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개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퍼스널리티를 발달시킬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개인은 집합적 또는 단체적 퍼스널리티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거의 무방하다.

한반도가 ‘효(孝)’에 기반한 ‘가문(家門) 중시’의 문화를, 중국대륙이 ‘신(信)’에 기반한 ‘가산(家産) 중시’의 문화를, 일본열도가 ‘충(忠)’에 기반한 ‘가업(家業) 중시’의 문화를 갖게 되었다면 제주섬은 ‘용(勇)’에 기반한 ‘가혼(家魂) 중시’의 문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개체주의와 대동주의의 두 용어를 합치면 ‘개체적 대동주의(Individual Corporativism)’라 표현할 수 있지만, 중국의 후진타오가 주창한 ‘조화사회(調和社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체적 대동사회는 “공동체에 기여할 때 완성될 수 있는 개인에 비중을 두는 삶”, 즉 “나(주체적 자아=I=나)와 나 아닌 나(객체적 자아=We=우리)를 위한 삶”을 지상 이념으로 삼는 ‘따또주의’인 것이다. 따또주의란 혈연집단을 단위로 모든 것을 ‘또같이또같이’ 살아가려는 한반도부 무개성의 ‘또또주의’ 즉, ‘혈연적 집단주의(Family Collectivism)’와 모든 것을 ‘따로따로’만 하려는 서양의 따따주의(개인주의 혹은 원자주의)와 뚜렷이 구별되는 삶의 정신이다. 좀더 이해를 돕는다면 한반도의 혈연적 집단주의의 마을 공동체가 이스라엘에서 보는 공산적 키부츠(kibbutz)에 준한 공동체라면, 제주의 마을 공동체는 민주사회적 모샤브(Moshava) 공동체에 준한다. 시간이 갈수록 쇠퇴하는 키부츠 공동체는 모든 것을



공유하나 날로 번창하는 모샤브는 주거지와 경지 등은 사유이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경영된다.

또또주의의 문제점을 익히 아는 동양의 지성들은 서양의 개인주의를 동경하고, 또한 원자주의에 위협을 느끼는 서양의 지성들이 동양의 가족주의를 동경한다고 할 때 이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정신으로서 제주인의 따또주의에 주의해볼 만하다.

이념이 없는 정치엔 감동이 없다. 이념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포괄한다. 정치에서 이런 것이 빠지면 장사판이 되든지 개싸움판이 된다. 가치관이 상실된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1991년 (소련)공산주의 몰락에 즈음한 유럽(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이어·프랑스 사회당 리오넬 조스팽 집권,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독일 사민당 총선 승리〈'98년 9월 27〉)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되기 시작한 '제3의 길(The Third Way)', 즉 21세기 이상적 이념(이데올로기)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사회적 자본주의(Social Capitalism)' 혹은 '참여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라는 것이 있다. '사회적' 혹은 '참여'라는 용어는 '대동'에, 자본주의라는 말은 개체주의(따또주의 : 중도우파성 이념)에 걸맞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 하고 있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고 있지만, 개체를 인정 않는 민주(民主)는 공허하고, 대동을 실천 않는 공화(共和)는 위선인 것이다. 이것은 제주인의 개체적 대동주의(따또같이주의)가 남북통일의 대안 이념이 됨을 의미한다. 이념은 한 사회와 구성원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상형(理想型)을 제시한다. 이것이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사상인 철학과 다른 점이다.

굳이 이념적 차원에서 비교하자면 기든스 교수의 '제3의 길'이 중도좌파 이념이라 할 때, 제주인의 개체적 대동주의(해민정신)는 중도우파 이념이 된다는 것이다. 강조해 둘 것은 세계사적으로 보아 어느 한 사회가 성장 발전하는 힘은 우파 이념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인의 '개체적 대동주의'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고 문화적 용어라는 것으로 이는 곧 가치중립적 연구 태도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노당>을 제외한 다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중도자유주의', 구 <열린우리당(중도 자유주의)>과 구 <민주당(중도 실용주의)>이 합당하여 만든 제1야당의 <새정치연합>이 표방하는 '민주적 시장주의' 이념 모두는 결국 개체적 대동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어온 현재 제주도지사인 원희룡은 <주간조선> (2004/08/06, 1815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 동맹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중도우파’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생각하고 있다.”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물음에 그것은 “……남북문제를 위해서는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들에게는 ‘자유’를 주어 몸집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해민정신으로 표상되는 제주인의 개체적 대동주의(따또주의)는 아나키공동체를 지향해온 정신문화로서 “가장 예스러우면서 가장 새로운 정신”일뿐더러 “가장 제주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보편정신”으로 지세화가 가능한 정신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시인인 김지하는 필자의 줄지를 정독하고 제주 미래 나아가 한국 미래의 화두(話頭)로 던진 ‘탐라한류(耽羅韓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송성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이어도(해양)문화’입니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현실적이면서도 초월적인 내추럴 모더니즘이랄까, 세계사적으로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륙(사관)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양 중심으로 대륙과 결합,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게 제주가 해양한류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결론해서) 한류(韓流)는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탐라한류야말로 제주의 미래이자 (세계)전체를 아우르고 선도하는 ‘열린중심’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끝).

(〈한라일보〉 입력날짜 : 2005년 07월 04일 <대담 : 김계춘 편집국장>)

